“빗물 모아 다시 써 ‘광프리카’ 막자”

〈광주+아프리카〉

물 순환도시 조성 포럼 개최
빗물 증발 될수록 열섬 악화
옥상 정원·빗물저금통 제안
市, 다음달 시범사업 설명회

지난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민포럼’. 이날 포럼에서는 빗물을 도시에 저장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광주시 제공〉

광주가 1950년대에 비해 빗물 유출이 두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도심 속에 빗물 등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면 평균 기온을 낮추고 광주천 유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 시민포럼’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광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 환경단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시민이 함께하는 물순환도시 구현’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불투수 면적률을 공개했다. 불투수 면적률은 전체 도시 면적에서 지면이 콘크리트 포장 등으로 덮여 있어 빗물이 스며들 수 없는 지역의 비율이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의 불투수 면적률(27.02%)은 서울(54.37%)·부산(30.34%)에 이어 세번째로 높았다. 김 교수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불투수 면적이 증가해 녹지 공간이 축소돼고 자연적인 물순환이 이뤄지지 않아 도시 열섬 현상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빗물이 지하수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잔디블록, 자갈 등의 면적을 늘리고 옥상 정원, 인공습지을 갖춰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혁 한국환경공단 과장은 ‘저영향개발 국내 사례’를 통해 옥상녹화, 식물재배화분, 나무화분 여과상자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지난해 7월부터 용역 중인 ‘광주광역시 물순환 관리 기본계획’ 발표(김상덕 ㈜이산 상무)에서는 광주 물순환 현황을 설명했다. 1950년대 광주에 내린 빗물은 대기 중으로 없어지는 ‘증발’이 34.8%, 지면에 흡수되는 ‘침투’가 38.5%, 하천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출’이 26.7%였다. 2018년 현재는 증발 23.7%, 침투 23.6%, 유출 52.7% 비율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는 장기적으로 각각 35%, 38%, 27%로 만든다는 목표다. 현재 광주 시가지의 불투수 면적률은 56.3%로, 환경부에 따르면 하천 수질은 ‘보통~불량’, 생태 다양성은 ‘불량’ 판정이다. 시는 25%까지 낮출 계획이다.

시는 오는 5월 2차 시민포럼을 열고 이후에도 시민 참여유도를 위해 시범사업(상무지구)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개최, 물순환 로고 공모전 등도 열 예정이다.

김석준 광주시 생태수질과장은 “가정에서는 빗물을 모아 쓸 수 있는 빗물저금통을 설치하거나 빗물을 머금었다가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옥상녹화조성 등을 해볼 수 있다”며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은 지속적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을 총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물순환 기본 조례’ 제정, 물순환위원회 구성, 관련 기관·부서와 협업팀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준비단계를 거쳐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는 2단계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후에는 시 전역에 물순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쿵’ 등산길 낙석 주의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직원들이 지난 1일 화순 만연산 큰재 일원에서 낙석을 제거하고 있다. 동부사무소는 이날 화순소방서·화순경찰서와 합동으로 등산로 인근 낙석위험구간 2곳에서 1t 규모 낙석을 정비했다.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 제공〉

“평촌마을서 자연과 놀자”
광주환경연합 어린이 모집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어린이 자연나들이 ‘평촌마을 자연지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평촌마을에 모여 자연 소재를 활용하는 놀이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깨우는 것을 목적이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6월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4월 오리엔테이션 을 시작으로 ‘천연모기퇴치제 만들기’, ‘생태세밀화 그림그리기’, 저서생물·수서곤충 관찰하기‘ 등 생태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참가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선착순 28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비는 회원 5만5000원, 비회원 6만원이다.

참가신청은 광주환경운동연합(062-514-2470) 또는 홈페이지(gj.ekfem.or.kr) 프로그램 참가신청란에서 할 수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기차 수소연료전지차 하이브리드차

광주·무안공항 저공해차 주차비 반값 할인

광주·무안 등 전국 공항 주차장에서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자동차 주차요금을 자동 할인한다.

그동안 저공해자동차는 주차장 관리자가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환경부·한국공항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일반 차량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차량으로, 전기차·수소연료전지차·하이브리드차 등을 의미한다.

이번 협약 주요내용은 공항공사의 ‘주차요금 정산시스템’과 환경부의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광주·무안 등 전국 공항 주차장 15곳에서 이르면 오는 5월부터 저공해자동차에 대해 자동으로 주차요금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저공해자동차 표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서 올해 1월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 차량등록사업소의 저공해자동차 표지발급 대상 여부의 확인을 비롯해 표지발급 관리대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때 관리자가 육안으로 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복제하거나 불법으로 발급받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관 간 시스템의 연계·개선으로 저공해자동차를 자동으로 인식해 주차요금 할인을 추진했다.

한편, 저공해자동차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총 186만1934대가 보급됐으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 건수(2016년 기준)는 총 71만1486건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1인당 하루 배출 쓰레기 930g

5년 새 10g 감소…종량제 봉투 27%·음식물 40%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을 분리 수거하지 않고 여전히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제5차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결과,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량이 929.9g로 5년 전에 비해 10g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한 사람이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929.9g으로, 이 중 종량제 봉투는 255.4g(27%), 분리배출된 음식물류 폐기물과 플라스틱 등 재활용가능 자원은 각각 368.0g(40%), 306.5g(33%)으로 나타났다.

종량제봉투 속 폐기물은 종이류가 가장 많았고(28.5%), 다음으로 화장지류(21.1%), 플라스틱류(20.8%), 음식물류(4.8%) 순으로 구성됐다.

분리배출 됐다면 모두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플라스틱·유리·금속·건전지 등이 종량제봉투 폐기물의 53.7%를 차지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분리배출 비율은 전국 평균 93.6%로 나타났으며, 4차 조사(2011년10월~2012년12월)와 비교해 2.7%포인트 증가했다. 환경부는 2013년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음식물류 폐기물은 채소류(32.9%), 곡류(25.0%), 어육류(16.3%), 과일류(13.1%) 순으로 많았다.

사업장폐기물은 2016년 조사 기준으로 하루 37만5000t으로 2011년 4차 조사 시기의 하루 33만4000t과 비교해 볼 때 증가 추세다.

한편,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종량제 봉투를 직접 열어보는(파봉) 등의 방법으로 가정과 비가정(생산제조·음식점업 등)에서 하루에 버려지는 생활폐기물의 양과 종류를 일일이 조사하는 방식으로, 1997년부터 5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뤄졌으며, 전국 4380개 지점의 종량제 봉투 등을 계절마다 1회씩 조사했다./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